

##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현황과 그 문제점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로서 인생중 신체적, 정서적 및 정신적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격동기로 양심과 충동의 갈등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충동과 갈등을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하면 주위환경과 심한 마찰을 보일 뿐 아니라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감수성이 민감한 때이므로 주어진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때는 예기치않은 부적응적 현상을 나타내는 수가 많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에서 오는 의존성과 호기심, 도전심과 친구들의 권유나 또래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접하게 된다.

최근 청소년들간의 약물남용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발달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지

대한 악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비행과 범죄행위를 자행할 수 있어 사회적 병폐를 낳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약물남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하였고, 산업화·공업화·도시화의 물결속에서 남용되는 약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종 약물을 혼합남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남용되는 약물의 종류로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환각제, 항히스타민제, 공업약품(본드, 부탄가스)및 마약 등이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 어릴 때 부터 약광고를 접하고 어디서든지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약물사용기회가 열려있기에 청소년 약물남용이 증가추세에 있고 점차 남용자의 연령이 하향화하고 약물복용후 난폭한 행동을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등 어린 학생들이 접착제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후 중독현상(호흡중추억제)이 생겨 본의아니게 죽거나 자제력을 잃고 폭력행위나 자살을 하는 사례가 늘어 가고 있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약물남용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들의 눈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약물남용을 하고 있으며 임상전문가들도 흔히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가 종종있다.

약물남용 및 의존에 관한 정의는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세계2차대전 종말이후 약물사용 및 오용에 관한 정의는 혼동되어 쓰여왔다. 용어의 혼합사용은 마약상습습관성, 정신적 의존, 감정적 의존, 혹은 사용이나 남용 등등으로 제각기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혼용되어 쓰여왔다. 1960년 후반기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용어통일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의를 간략히 소개한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의내용은 비슷한 점이 많다.

WHO와 APA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WHO

약물남용: 의료행위의 규정에 맞지않게 약물을 지속적 혹은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

약물의존 : 약물사용의 중지로 불쾌감을 피하고, 정신적인 약물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을 지속적 혹은 주기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약을 얻고자하는 강박성이 부수되는 정신적 및 신체적 중동상태를 말한다.

정신적의존 : 쾌감을 얻고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 혹은 주기적 약물 사용으로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

신체적의존 : 약물사용을 금했을때 신체적 증상 즉,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APA

물질의존의 진단기준

환자는 물질남용으로 인하여 다음중 3가지 이상의 증상 및 장애를 보이게 된다. 가. 다음과 같은 내성을 보이게 된다.

- ㄱ. 중독증상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물질의 용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 ㄴ. 같은 용량을 계속 복용시 약효가 현저히 감소함을 느낀다.
- 나. 다음과 같은 금단증상을 보이게 된다.
  - ㄱ. 복용물질에 부합하는 특징적인 금단증상을 보인다.
  - ㄴ. 금단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을 계속 복용한다.
- 다. 자신이 의도하였던 것보다 더 오랜기간에 걸쳐 또는 보다 많은 양의 물질을 복용한다.
- 라. 물질남용의 빈도를 줄이거나 또는 물질을 끊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나 계속 실패
- 마. 물질을 구하는데(예:여러 의사를 찾아가거나 먼곳까지 장거리 운전을 단행), 물질을 복용하는데(예:줄담배), 복용한 물질효과에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 바.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오락활동등이 물질 복용 때문에 줄어들거나 포기하게 된다.
- 사. 지속적·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적 문

제가 물질복용에 의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질을 복용한다 (예:코카인으로 우울증이 유발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코카인을 복용하거나, 음주로 위폐양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심).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명기 생리적 의존 동반:내성 또는 금단증상이 있음(상기 진단기준 중 「가」또는 「나」를 보임)

생리적 의존 동반하지 않음:내성 또는 금단증상이 없음(상기 진단기준 중 「가」도 「나」도 없음)

#### 물질남용의 진단기준

환자는 물질복용 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중 1가지 증상 및 장애를 보이게 된다.

가. 직장, 가정, 학교등에서의 주요 역할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물질복용(예:물질복용과 관계된 반복적 결근, 저조한 작업수행력, 물질복용으로 인한 결석, 제적처분, 육아나 가사를 소홀히 함)

나.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물질복용(예:물질중독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조작)

다. 반복적인 물질관련 법적 문제를 야기(예:물질관련 문제행동으로 인한 구금)

라. 지속적·반복적인 사회적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물질복용에 의해 유발 또는 악화되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질을 복용(예:술에 만취되어 격투를 벌인 일로 배우자와 언쟁을 하게 됨)

이상의 증상이 물질의존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해가 거듭할수록 심리적 의존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암페타민이나 코카인같은 많은 약물들은 사용중 급작히 중단시켜도 심한 신체적 금단증상이 생기게 되고 같은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더 많은 양(量)을 찾는 심리적 충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가속화시키는 것이 약물추구에 대한 심리적 갈망이다. 이런 심리적 갈망이 의존의 특징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은 약물사용을 중단한 후 신체적 금단증상이 없다고 그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교사나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선도 및 치료기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발생빈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빈도 및 유병률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약물남용에 관한 보고 및 조사상의 문제도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약물사용양상이나 사용유병률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한국의 학생청소년 및 비행청소년들의 약물사용빈도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청소년(12~21세)중 19.3%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고, 6.4%는 과거에 흡연한 적이 있어 모두 25.7%가 담배흡연 경험이 있고 그중 남성은 27.2%가 현재 흡연하고 있으며 여성은 15%가 흡연하고 있다. 음주의 경우 14.9%가 현재 습관적으로 과음을 하였고 42.3%는 음주경험이 있어 모두 57.3%의 청소년이 음주한 경력을 보여 주었다. 특히 남성에서는 20.4%가 습관적으로 과음을 하고 있고 여성은 4.1%가 습관성 음주를 하였다. 이런 결과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담배 및 음주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음주흡연이 다른

약물의 남용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청소년 약물남용은 23.5%로 비행청소년에서는 43.1%가 약물남용을 경험했고, 학생청소년에게는 15.1%가 약물남용을 하였다. 남용한 약물중 각성제가 31.0%로 가장 많았고, 흡착제가 26.2%, 신경안정제가 25.0%였다.

다시말해서 청소년들에서 4명중 1명이 약물남용을 경험하고 있고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보다 3배정도 더 많이 남용하고 있다. 이런 결과에서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변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약물남용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약물남용청소년들은 성격적인 면에서 쉽게 흥분하고 기분변화가 심해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어른들에게 반항적인 성향이 높았다.

가정에서도 가족원들중에 만성신체질환이나 우울증, 자살기도, 알코올중독 및 범법행위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았다.

○ 청소년 약물남용의 환경적 요인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의 환경적 요인은 가정, 학교, 또래집단 및 사회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 요인을 한 항목씩 기술했다.

(1) 가정 (family)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한다. 가정의 기능이 적절하고 바르게 유지되면 청소년들은 이런 상태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발달시키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며 웃어른에게 순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사회일원이 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의 기능이 잘못되면 청소년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즉 자녀들의 비행, 약물남용 및 부적응적 행동양상이 발현될 수 있다. 잘못된 가정이라 함은 부모들의 자녀 양육방법이 극단적인 보호-거부의 양상을 보일 때를 말하며 동시에 파탄가정도 이에 속한다.

때로는 극단적인 거부상태나 보호하는 양육방식에서도 자녀들이 비교적 건전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극단적인 양육태도는 가정분위기에 해롭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적 양육이라 함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양육행동과 태도를 말한다. 즉 자녀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사랑과 애정을 주고 잘하면 보상을 주는 행동과 태도를 가르친다.

반면 거부적 태도에는 자녀들이 사회규범을 어겼을 때 부모들이 자녀를 신체적 혹은 언어적 징벌을 가하거나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결국 청소년 자녀들의 약물남용이나 비행은 이와같은 거부-보호의 극단적 상황을 오고가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 (2) 학교

부적절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입학하는 자체도 아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많은 학교의 운영정책과 방법 등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지속시킬 수도 있다. 교육행정가들은 학교체제가 젊은이들을 성공시키는 바른 통로를 마련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교육의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개방적일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폐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학교교육을 마치고 바른 시민의 길을 걷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둡고 잘못된 길을 걷는 젊은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환경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비행과 약물남용에 영향을 줄까?

먼저 저소득층 학생들은 능력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볼 때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저하로 어수선했던 수업태도, 가정경제의 열세에서 오는 열등 의식때문에 같은 처지의 학생들과 어울려 교사비방, 비행행동이나 약물남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청소년문제 전문가나 교육자들은 깊이 고려해야 할 과제로 본다.

### (3) 또래집단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에 순응하는 힘이 아주 높다. 자신에게 영향주는 사람 즉 부모에서 또래집단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친구들을 매우 중요시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또래집단 즉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호기심내지는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흔하다. 대개는 담배 술 대마초에 손을 대고 대부분 친구관계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정도이고, 파괴적이고 난폭한 행동은 별로 없다.

그러나 때로는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때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래집단과 어울려 약물남용하는 경우는 또래집단 전체가 약물남용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행동해야 한다.

(4) 사회환경

사회변화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나 비행에 영향을 준다. 청소년들은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어하여 성인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술, 담배가 만연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쉽게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고 싶은 충동에서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술, 담배를 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술 담배를 안하는 가정의 청소년보다 술, 담배를 빨리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들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청소년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습관을 배우게 된다.

필자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의 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 과도기에서 약물남용의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직접 학생 및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결과를 설명하겠다.

청소년들은 크게 7가지 유형에서 약물남용을 하였다. 각각의 동기별로 현황분석을 하겠다.

1) 모험(호기심)추구형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53.8%가 이형에 속하였다.

청소년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호기심이 많고 흥분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많은 경우 무서운 영화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부모들이 겁을 내고 막는 모험적 행동을 즐겨하고 몰불을 가리지 않는 때가 많다. 사실상 인간이 위험한 상황을 피해만 간다면 발전이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모험적 탐구행동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차단될때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특히 모험추구형 청소년들은 그들의 추구가 좌절되고 폐쇄될때 흔히 본드(접착제)를 흡입하여 자신들의 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2) 교우관계 유지형 약물남용

12.3%가 이유형에 속하였다.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데는 사교성이 필요하게 된다. 대부분은 친구를 쉽게 사귀고 친분을 유지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사교성이 없어 마음에는 있어도 쉽게 친구를 못 사귀고 외롭게 지낼때도 많다. 이런 외로움은 청소년들에게 절망적인 행위를 자초하게 되어 결국에는 친구관계를 맺기위해 대마초나 술에 손을 대게 된다.

3) 평화 추구형 약물남용

약물남용 청소년의 11.4%가 이군에 속하였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격정적 감정을 바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약물남용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들이 쉽게 찾는 약물로

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신경안정제, 수면제나 대마초같은 환각제를 사용한다.

**4) 힘 추구형 약물남용**

8.5%의 청소년이 이군에 속하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다 있다.

청소년들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때가 많다 그래서 힘의 추구를 위해 각성제(암페타민계)나 코카인을 섭취하게 된다.

**5) 성(性)적 추구형 약물남용**

7.2%가 이군에 속하였다. 이것은 교우관계형 약물남용자와는 좀 다르게 친구에 대한 관심보다 성적 관심을 갖는다. 성적 주체성을 찾기 위한 성적 갈등과정은 청소년기의 특유 현상으로 잘못되면 성적 난잡성이 발생한다. 청소년들은 이성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성 유희에도 호기심을 가지나 자신의 성적 능력을 몰라 시험하고 싶은 충동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이성에게 향하는 성적 충동을 약물복용으로 해소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성적 추구형 청소년들은 각성제 같은 약물을 섭취한다.

**6) 초월명상 추구형 약물남용**

5.1%가 이군에 속하였다. 청소년들은 약

물복용에서 신비적이고 신성한 세계를 추구하고 싶어한다.

**7) 미적 추구형 약물남용**

1.7%가 이군에 속하였다. 미적 추구는 조기 성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미적 추구를 위해 환각제를 사용한다.

○약물남용의 특징적 징후 및 발생과정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행동 및 태도와 약물남용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약물남용의 발생과정**

미국의 대마초 및 약물남용 위원회의 보고에 보면 대마초남용을 5가지 양상으로 나누고 있다. 즉 실험적 약물사용, 사교 및 오락적 사용, 상황적 사용, 격렬한 약물사용 및 강박적 약물사용으로 나누었다. 미국의학협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약물남용을 분류하고 있는데 약물 실험과정, 약물사용, 약물남용 및 약물의존의 형태로 나누었다. 이상의 분류는 약물남용을 각기 개별적 과정으로 기술했을뿐 진행성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몇몇 학자들은 약물남용의 진행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 기술하고 있다. 한 학자(Niza-



ma)는 코카인 의굴이 자연병력을 기술하면서 진행성 증상을 11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호기심, 약물 첫 복용, 쾌감, 또래 집단과의 소속감, 집단명예, 가족과 소원, 정신병질적 행동, 의식적 행동, 약물의존성과 내성, 신체적 쇠퇴 및 심한 사회병질적 인격붕괴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다른 학자(Wilford)는 약물남용의 진행과정을 4기(期)로 나누고 있다. 즉

0기:약물을 복용하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고

1기:약물복용으로 기분변화를 느끼고

2기:다시 기분양양을 얻기 위해 약물을 찾게 되고

3기:약물에 의해 얻은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집착하게 되고

4기:다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좋은 기분을 유지한다.

## 2) 약물남용의 특징적 징후

약물남용시 청소년들의 행동 및 태도변화는 다양하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 출석률이 나쁘고 학교숙제등을 소홀히 한다.

② 집에서의 생활양상이 변화한다.

③ 신체적 쇠약성을 호소한다.

④ 약물남용자는 대개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때가 많고 남의 눈치를 보는 태도가 많다.

⑤ 눈동자를 보면 동공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있다.

⑥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자주 빌리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요구한다.

⑦ 때로 학교급우나 집에서 돈을 훔치거나 물건을 내다 판다.

⑧ 약물복용을 위해 음침하거나 밀폐된 장소(폐허건물이나 공사장, 야산 등)를 찾고 자기방을 잠가 놓고 잘나오지 않는다.

위와같은 양상을 보여주면 청소년들의 행동 및 태도에 변화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약물남용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보는 것이 좋다.

명백한 경계징후는 아니지만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징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초기 아동기에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 학교나 집안에서 음식투정이 심한 행동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 경한 행동장애가 있을 때 및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초기 아동기의

##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현황과 그 문제점

아동들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약물남용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다는 보고도 있다.

교사 및 청소년관계전문가들은 항상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적 특징 및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할 때 제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태도는 조기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 청소년기에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은 대개 그 비용이 저렴하고 기분을 앙양시키거나 평화스런 마음을 유지시키는 약물을 찾는다. 흔히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그 사용방

법을 알아보면 그 약물로 인한 신체적 증상 및 위험도를 보겠다. 다음 표1에 제시되어 있다.

### ○ 약물남용의 진단

약물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주므로 약물사용에 의한 징후 및 증상 더 나아가 약물중독, 약물의존 및 약물중단시 제 징후나 증상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약물을 남용하게 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다른 정신장애의 병력조사와 마찬가지로 신체 검사 및 정신상태검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기에 부가하여 검사실검사 즉, 血中 및 尿에 약물의 존

(표1) 약물의 종류, 사용방법, 신체적 증상 및 위험도

약물종류	신체증상	사용방법	위험도
본드	난폭하고 술 취한듯 꿈 꾸는 것 같고 멍한 상태.	비닐봉지나 손수건을 이용해서 흡입	폐, 뇌세포, 파괴, 빈혈, 때로 사망.
마리화나	동공확대, 졸리움, 부유한 듯한 마음상태, 협응력 상실, 때로 난폭, 식욕증진, 결막 충혈.	담배종이에 말아서 피운다.	마약에 손 댈 위험성과 성염색체 변화.
암페타민	공격적 행동, 말이 빨라지고 혼돈된 생각, 식욕 부진, 구갈.	정제나 주사제를 사용.	과량 사용시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사망.
신경안정제 코테인이나 오피움이 함유된 향기침 약물 LSD	혼동, 구갈, 졸리움, 취한 듯한 양상, 협응력 상실, 혼돈, 심한 소양증. 심한 환각 현상, 소원감, 조리 없는 말, 손·발의 냉증, 구토, 감정조절이 안됨.	정제나 주사제를 사용 정제나 몰약 사용.	과량 사용시 판단력장애, 마약중독 상태를 일으킴.
코카인, 헤로인, 몰핀	혼미, 졸리움, 몸에 주사자국 식욕상실	액체 형태를 Tube에 넣어 사용.  주사기로 사용	자살 위험성, 예측키 어려운 행동, 만성적으로 사용시 뇌세포 파괴. 과량시 사망.

재를 조사하여야 된다.

정부당국에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방침으로 서울특별시 및 5개광역시 중·고생들의 약물반응(소변)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 및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

### ○ 약물남용의 치료 및 예방대책

약물남용의 치료는 매우 복잡하고 다요소적인면이 많다. 따라서 약물사용의 합병증, 약물복용중단시 금단증상의 치료, 약물의존에 대한 치료 및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약물사용의 합병증 치료

약물남용으로 인한 합병증은 상당히 많다. 약물복용상태하에서 청소년들은 협응력 결여, 자제력 상실 및 난폭한 행동을 자행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이나 바비탈계 약물(수면제)을 복용했을때에는 더욱 행동적 변화가 심할 수 있다.

때로는 여러가지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불결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B형간염이나 농양 및 패혈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약물중독상태에서 해

독되도록 하고 합병증을 치료해야 한다. 이때는 전문병원으로 보내어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 2) 금단증상의 치료

청소년들에서 마약중독은 드물지만 마약계 약물을 남용하여 약물복용중단시 금단증상이 발생되면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사돈 대치요법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암페타민이나 코카인같은 약물남용시 약물 복용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금단증상은 우선 심리적 현상과 연관되므로 재안심과 용기를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 항불안약이나 항정신병약을 단기간 투여해서 진정시키는 것도 유용할 때가 있다.

#### 3) 약물의존의 치료

청소년들이 어떤 약물에 의존성이 생기면 의존성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재활요법이 요구된다.

#### 4) 약물남용의 동기별 치료책

앞에서 기술한 치료내용을 염두에 두고 부모와 교사들은 의사와 협력해서 지지적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

그 기법을 약물남용 유형별에 따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모험추구형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모

험탐구를 약물에 의지하기 보다는 실제로 호기심이나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는 등산, 집단생활 여행 및 스포츠활동에 참여케 하여 해소시킬 수도 있다.

② 평화추구형 약물남용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고통받아 평온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 약물을 찾으므로 부모나 신뢰받는 교사들이 그들에게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를 알아내서 안심시켜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한다.

③ 교우관계 유지형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단에 가입하여 약물을 남용하므로 그 동료집단 전체를 치료대상으로 해야한다. 에컨대 청소년 집단회의, 부모-청소년자녀 집단모임, 청소년-교사집단모임 및 청소년-의료전문가 집단의 모임 등을 통해서 건설적인 교우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④ 힘 추구형 청소년들은 소년-소녀단원 활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협동심, 공동성취감을 맛보게 하여 약물에 의한 힘의 추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미적 추구형 청소년들은 예술가나 음악가(교사 포함) 등이 청소년들의 미적 추구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잠재력 개발에

힘써 약물사용에 의한 미적 추구의 잘못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⑥ 性的 추구형 청소년들은 性的 주체성 확립시 호기심 많은 성적 분야를 한정시켜 철저한 성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⑦ 초월 명상추구형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종료적 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과 기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책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관계 전문가, 교사 및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의 변화 과정을 세밀히 관찰하고, 그들과 장벽없는 솔직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갈등을 약물남용에 의해 해결하기 보다는 주위의 중요 인물과 의논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은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 맺음말

청소년관계 전문가와 교사들은 약물남용청소년들과 접할때 반드시 상기하여야 할 주의점을 몇가지 기술하겠다.

첫째, 약물남용청소년을 약물남용하는

자체만을 비행으로 보고 면담과 그 행동을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약물을 하게 된 환경적 배경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약물남용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들의 행동변화를 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청소년들의 선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들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면 의외로 쉽게 풀려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나 비행의 교정은 감호소나 소년원과 같은 엄격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는 행동이 교정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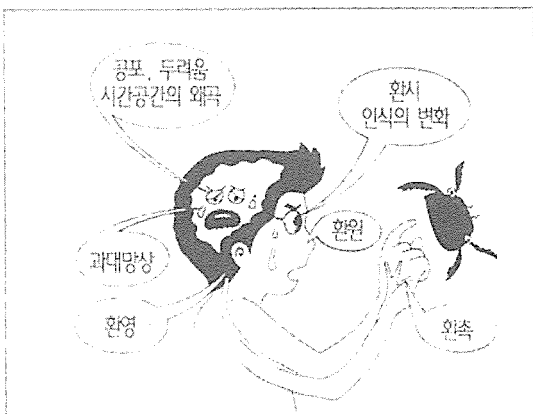
셋째, 현재 우리는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약물남용자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기관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고 법적제도 또한 빈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약물남용 청소년들과 직접 접하는 일선 교사나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지 통권 제20호 게재분)

울산의대부속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교수  
한국학교보건협회 이사

김 현 수

환각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향정신성 의약품

